

대행 스님

그저 늠름하고 태연하게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이 공부를 하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스물세 살 땐데, 참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했던 겁니다. 한 손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고만 하면 우리 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손 아닌 손은 이 손가락 하나를 떡 올리면 저 다른 혹성에까지 그 손가락이 가. 가선 이렇게 옭아. 옭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비라면은 그렇게 해서 옭아 와도, 죽여도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아, 이놈의 물체들은, 물체 없는 물체들은 말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빼 먹어요. 힘을 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힘을 다 빼 먹고, 꺼내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다 꺼내서 땔 거 때고 그런다면 자력과 광력은 어디서 다 나며 또는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어디서 나서 다 먹고 살렵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리, 부처님 도리의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자의 대덕 스님네들의 말씀을 응용한다면, 예전에 덕산 스님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설봉 스님은 제자로서 공양주를 하셨고, 암두 스님은 대중을 이끄는 분이었고 또 덕산 스님은 조실로서 계셨는데 아, 사시 마지가 지나도 종을 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을 울리지 않고 하니 바리때를 들고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덕산 스님은 바리때를 들고서 오온의 법계를 위로나 아래로나, 일체제불과 중생이 다 같이 공양하고 그릇을 비워 가지고 막 돌아서는데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무슨 소릴 질렀느냐 하면은, "늙은이가 종도 안 울리고, 북도 안 치고, 목탁도 안 쳤는데 바리때를 들고 어슬렁거리느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오고 가는 그 그림자만 보고 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설봉 스님은 또 암두 스님한테 "저 늙은이가, 그렇게 악을 쓰니깐,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니까, 빽! 악을 쓰면서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아, 말후구(末後句)를 몰랐구나!" "그 늙은이가 말후구를 몰라서 그랬구나!" 이랬으니 얼마나…. 이것은 한쪽에서는 눈이 멀고 한쪽에서는 귀가 뜨이지 않았어. 그 소릴 듣고 그렇게 하질 말았어야지, 지혜가 있다면. 귀는 뜨였으나 귀가 뜨이지 못했어. 눈은 떴으나 눈이 뜨이지 못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화두 삼아서, 사구를 화두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은 방편으로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래도 효자가 그것을 함정에 빠진 걸 건졌다고 했으니 이거는 대덕을 너무나 자기네들이 함정에 빠트리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건지고 농락을 했다 이 소립니다. 얼마나 농락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는 예전에 대덕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네가 덕산 스님이라면 설봉이 그렇게 했을 때에 너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 요거 한 가지를 일러 봐라." 이렇게 했을 게고, 또 한 가지는 "암두 스님이 말후구를 몰랐구나 하는 거를 또 한 가지를 일러 봐라." 했을 거고, 그게 천칠백 공안에 다 들어 있다 이 소리겠죠. 그거는 의당히 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 천칠백 공안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화두고, 모두가 공안 아닌 게 없는데 말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천지를 말하고, 칠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는 이 자체를 보고 칠백이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뜻을 보고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도 삼혼 칠백이라고 그러죠, 죽었을 때도.

그건 그렇고, 또 "암두 스님 들어오라고 해라. 이놈이 그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놈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들어와서는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하니까는, 그냥 끄덕거리고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건 또 뭐며, 또 그 이튿날 설법하시는데 예전보다도 더 쩡쩡하게 설법을 하시고선 "삼 년만 있으면 내가 죽노라." 했다니 그 삼 년은 어디에다 둔 말씀이냐, 이걸 일러라.

이래서 우리가 천칠백 공안 속에 들어 있는 이 자체를 다 '말 없이 이를 수도 있고, 말을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도 대답 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그 공안의 이치를 알라'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인데, 아, 그렇게 설법을 하시는데도 또 암두 스님은 "야! 우리 스님이 이제는 말후구를 알았구나!" 그러고선 손바닥을 쳤다니 말입니다. 내가 이것이 벌써 서른 안짝에 들은 소립니다마는 참, 이 모두가 생각을 어떻게….

달마 대사께서도 육조 대사께서도 혜가 대사께서도, 어느 스님 쳐 놓고 대덕이신 스님들은 면벽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무슨, 면벽을 했다고 해서 꼭 어디 죽치고 앉아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줌 누고, 밥 먹고, 똥 싸고, 허허,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지 않고 면벽을 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이 무르익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무라면 제 나무에서 제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수 있고, 만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만 가지 맛이 날 수도 있는가 하면 만 가지 맛이 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 않은 열매라면 한 가지 맛이나 낼지 말지 그렇죠. 한 가지 맛을 내 가지곤 아니 돼. 이 천칠백 공안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선 대답해 봤자야, 그거는.

정말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뿌리 없는 기둥을 자루 없는 도끼로 다듬어서 받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발 없는 발이 두루 할 거고,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거고, 말이 많아도 말 한마디도 아니 하고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무수히, 무시무시하게끔 땅속이나 물속이나 들이나 허공이나 도대체 이 실체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집을 비워 놓는다면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이 주인이 돼서, 온통 괜히 신경질 나게 하고 말이야, 괜히 차분한 사람을 그냥 신경질 나게 하고, 막 그냥 달아나가게 만들고, 그냥 답답하게 해서 나가서 바람 쐬게 만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